

노동부 차관, 8개 경제단체에 민간 유연근무 활성화 협조 당부

-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후속조치로 민간 유연근무 활성화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유가 위기 극복 및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 한국경영자총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중앙회 ▲ 벤처기업협회
▲ 메인비즈협회 ▲ 이노비즈협회 ▲ 소상공인연합회 ▲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8개소

정부는 지난 4월 28일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를 위한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발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그 후속조치로 주요 경제단체에 민간 유연근무 활성화를 당부하고 효과적인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의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시 장려금, 출퇴근관리 등 시스템 설치·이용료, 유연근무 경험이 없는 기업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자원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기존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시차출퇴근 활용에 대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소규모기업 노동자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성미 박사는 발제를 통해 유연근무제가 더 이상 복지 차원이 아닌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성미 박사는 기업 조사 결과 실제 도입 기업의 약 70%가 조직 운영 개선과 직무 만족도 향상 효과를 경험했으며, 인력 운영 효율성과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택·원격근무와 선택근무제는 업무 몰입도와 이직 의향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인프라와 운영 역량 부족으로 도입 격차가

큰 만큼,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유연근무를 일괄 도입하기보다 직무별로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회원사에 유연근무 활용을 당부하는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구체적 활용사례 및 매뉴얼 제공, 정부 지원 제도의 확대, 정부-협단체 공동 캠페인 등 기업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방안 등을 건의했다.

권창준 차관은 “중동전쟁 발 고유가 위기와 대중교통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무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단체에서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행사 개요
 - 2. 유연근무 지원제도
 - 3. 일생활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별첨)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02-7496
		담당자	팀 장	이상전	044-202-7962
			사무관	이치훈	044-202-7473
			사무관	김상엽	044-202-7497
			주무관	오영배	044-202-7502



□ 배경

-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2부제 등 범정부 대책 추진, 대중교통 출퇴근 수요 증가에 따른 혼잡 예상
-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

□ 주요 내용

- 일시 /장소: 10:00~11:00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4
- 참석자
 - (노동부) **차관**, 고용지원정책관
 - (경제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 (전문가) 정성미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세부 일정 (안) ※ 행사 전체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05	5'	▸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05~10:08	2'	▸ 인사 말씀	차관
10:08~10:13	5'	▸ 유연근무 지원사업 소개	지원국장
10:13~10:25	12'	▸ 유연근무 도입 성과 등 소개	전문가
10:25~10:55	30'	▸ 유연근무 확산 방안 논의 및 활성화 당부	차관 , 경제단체
10:55~11:00	5'	▸ 마무리 말씀	차관



2026 유연근무 기업지원제도

유연근무
장려금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노동자의 ▲ 육아기 시차출퇴근 ▲ 재택·원격근무 ▲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최대 360만원)

*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일반노동자의 두 배 지원



시스템
지원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 미도입한 기업이라면?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을 위한
시스템 투자비용의 일부(80% 1천만원 한도)를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은 시스템 사용료 100%(연 180만원 한도) 지원



도입·운영 경험이 없는 기업이라면?

컨설팅,
교육 등

①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상 교육, 홍보 상담 지원연계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 26년 지원대상 산업단지 : 구로디지털산단, 반월시화산단, 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②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직무분석 등을 통해 최적 유연근무 설계 등 기업 내 제도화 지원

※ 문의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플랫폼(<http://kwpi.or.kr>)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